



국산 고속철 시속 300km 시험주행 성공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전철이 시속 300km의 시험주행에 성공했다. 건설교통부(장관 최중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송달호)은 9월 17일(수) 철도분야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태우고 천안-대전구간에서 차세대 한국형 고속전철 시운전행사를 갖고 300km 시험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나라가 원천설계기술과 핵심부품 개발 및 차량 제작기술 등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 되었다. 핵심부품들은 로템과 현대중공업이 공동제작했다. 이 한국형 고속전철은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129개 기관에서 937명의 연구인력과 약 2천100억원(국고 1천51억원, 민간 1천49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였다.

한국형 고속전철은 경부·호남고속철도에 투입되는 프랑스사가 제작한 차량보다 50km/h 빠른 것으로 2007년 상업화할 계획이다.

세계 초일류 기술·경영대학원 추진

지식기반형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창조적 국가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초일류 종합 기술·경영대학원이 빠르면 2005년 국내에 설립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국가 주력산업인

차세대 자동차 분야와 첨단 성장산업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영국 워릭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협력, 국내에 초일류 기술·경영대학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초일류 종합 기술·경영대학원 설립 방침은 현재의 모방형 국가 혁신시스템으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국내 대학과 대학원, 출연 연구소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문기 과기부 과학기술협력국장은 “우선적으로 차세대 자동차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영국 워릭대학측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워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10~20년 후 자동차산업 발전전망을 토대로 이에 필요한 창의적인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영어강의, 캠퍼스내 영어 공용화, 국제 수준의 교수진 확보,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인공지능 융합기술과 기술경영이 결합된 학제간 교육 등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구축해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 연구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 IT산업 OECD 28개국 중 6위

한국 IT(정보기술)산업의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에 이어 6위로 평가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발표한 '2003 IT산업 경

쟁력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대비 IT산업 비중, 연구개발규모, IT관련 미국내 특허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등 78개 항목에 걸쳐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OECD내 다른 나라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IT수출규모와 특허도에서 한국이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기술혁신 수준에서도 6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정책·법제도 수준(9위), IT산업 규모·비중(10위), IT인프라 수준(12위)에서는 중상위권 수준을 유지했으나, 인적 자원·노동시장과 금융·벤처창업환경에서는 각각 17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차세대 인프라 구축계획 발표

지금의 ADSL보다 100배 빠른 광대역 초고속 케이블망이 오는 2007년까지 구축된다. 또 내년 말부터는 달리는 차 속에서도 선명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방송이 융합되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 100배 빠른 광대역 초고속 케이블 인프라 구축

먼저 ADSL보다 100배 빠른 기가(Gbps)급 케이블 인터넷서비스와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05년까지 200개의 일반화질(SD)급, 10개의 고화질(HD)급 디지털TV 방송과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결합상품을 보급하고, 오는 2007년까지는 400개의 SD급, 30개의 HD급 디지털TV 방송과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결합상품을 보급한다. 또 저렴한 보급형 셋톱박스를 개발·보급하고, 케이블 셋톱박스가 내장된 디지털TV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 세계 처음으로 상용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도입

걸으면서 또는 달리는 차 안에서도 선명한 영상과 CD급 음질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DMB 서비

스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하는 것으로, 세계 시장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국내에 새로운 방송산업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업체들이 MPEG-4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많이 지니고 있어 세계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 2005년까지 디지털 지상파TV 전국망 완성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만 제공되는 디지털 지상파TV 방송망을 전국망으로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 전국 광역시 지역에 본 방송을 개시해 국민의 70% 이상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도청소재지, 2005년에는 시·군 소재지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정통부는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국내 프로덕션이 HDTV용 디지털콘텐츠를 새로 제작하거나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HD로 변환시킬 때 1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계획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지난 9월 16일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었다(문의 :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02-750-2431).

'기술사' 합격자 322명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8일 제70회 기술사자격시험 합격자 322명을 발표했다. 금형기술사 등 38개 종목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조영동(60·도로 및 공항기술사) 씨가, 최연소 합격자는 허지은(28·건축구조 기술사) 씨가 각각 차지했다.

모두 4천827명의 전문기술인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는 여성기술사가 8명 배출됐다. 기술사는 산업현장에서 연구, 설계, 시공, 분석, 평가, 기술지도, 공사감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최고 자격이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올해의 중소기업우수기능인에 (주)대도이엔지의 서태중(37) 씨 등 95명을 선정 발표했다. 

정리_ 권영일 과학저널리스트 sirius001@empal.com